



2021년 8월 3일
천주교사이타마교구 주교
마리오 야마노우치 이치아키

코로나 19의 감염확대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해 (제 19 차) - 관동지방 1도 3현의 「긴급사태선언」에 따라 -

또 다시 「긴급사태」가 선언되었습니다. 코로나 19의 감염상황은 델타변이의 등장으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으며,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백신접종도 늘어나고 있지만, 감염확대가 꺾일 추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음에, 우리는 계속하여 감염예방을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사이타마 교구로서는, 지금까지 「긴급사태」가 선언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일본 천주교 주교회의의 「감염증 대응 가이드라인」(2020년 11월 1일자)에 따라 신중히 대응하여 왔습니다. (대응제 15차 참조)

다행이도, 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교회에서도 전문가 분들의 노력으로, 어찌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다시 「긴급사태선언」하에서의 미사의 공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사태선언」의 대상이 아닌 토치기, 군마, 이바라키현을 포함하여, 「주일미사」를 선언종료까지 비공개로 합니다.
2. 단, 감염상황은 각 성당에 따라 매우 다르므로, 주임신부와 신도가 함께 숙고하여 「주일미사의 공개」를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주교에게 신청하시면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일 미사는, 지금까지와 같이 충분한 배려를 한 후에 거행하는 것을 용인합니다.

(注) 또한, 장례나 결혼식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하여주시요. 그 밖에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주교에게 상담하여 주시요.